

코로나19 유행시기의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Received: October 15, 2021
Revised: January 15, 2022
Accepted: March 3, 2022

이지영¹, 최 림², 성지현³
템플대학교 심리학과/ 방문연구원¹,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석사과정²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부교수³

교신저자: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소셜이노베이션
융합전공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ffects of Korean and Chinese Mothers' Parenting Environment and Parenting Stress on Their Children's Anxie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MAIL:
sungjh@skku.edu

Ji Young Lee¹, Lin Cui², Jihyun Su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Temple University/ Visiting Scholar¹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 Convergence Program
for Social Innov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student²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 Convergence Program
for Social Innov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³

© Copyright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이 논문은 2021년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시기에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기 자녀가 있는 한국 어머니 135명과 중국 어머니 208명이었다. 연구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 t검증, 상관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한국과 중국 어머니 모두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그 이유로는 자녀들의 교육기관이 휴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코로나19 유행시기 동안 한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중국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어머니의 자가격리 경험, 코로나19 확진자 수, 양육스트레스는 한국 유아의 불안을 설명하는 변인이었고, 중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중국 유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시기 어머니들이 처한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유아들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코로나19, 양육환경,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 불안

코로나19 팬데믹이란,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유행을 팬데믹으로 선언하였고(WHO, 2020), 2021년 9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2억 명 이상의 확진자와 4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WHO, 2021). 코로나19의 감염은 감염자가 재채기, 기침, 말을 하는 동안 발생한 비말을 다른 사람이 접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별로 방역 지침, 거리두기 지침 등의 규제를 적용해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2월 23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위기의 경보 단계에 따라 해외유입을 차단하고, 공공시설을 휴관시키며, 접촉자를 격리하는 봉쇄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¹⁾(보건복지부, 2021). 2022년 2월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발생 시점은 2019년 12월 1일로 확인이 된 상황이다. 이후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2020년 1월 23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출입 통제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19의 유행이 심각한 지역에 한하여 해외출입 차단, 대형 집회 중지,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금지, 학교나 유치원 및 공공시설과 교통을 폐쇄하는 조치를 실행해왔다. 2022년

2월 현재 31개의 성(자치구 직할시) 중에 코로나19 발생 고위험 지역은 4곳, 중위험 지역은 40곳이 있다.²⁾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가족이 건강과 안전, 경제적인 안정 등의 많은 영역을 위협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성현, 2021; Brown et al., 2020). 특히, 전면적으로 봉쇄하여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규제는 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위험을 증가시키며,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Sprang & Silman, 2013). 중국 어머니들의 경우, 전면봉쇄가 실시된 기간에 양육스트레스 측정된 결과, 대부분 어머니가 임상 집단을 기준으로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여 극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고되었다(Tchimtchoua Tamo, 2020).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아이들 교육기관의 휴원과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은 부모의 근심을 매우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구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들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 자원이 부족하여 자녀들의 원격수업을 보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온종일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Cluver et al., 2020; Moscardino et al., 2021).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일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일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휴교하기 전보다 휴교한 후에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layem et

1) 한국은 코로나19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조정하여 코로나19의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의 1단계부터 코로나19의 대유행의 4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모임 금지, 학교의 경우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2) 중국은 코로나19의 유행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하고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사람의 집결과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조치가 시행된다.

al., 2020).

코로나19 시기에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홈스쿨링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을 낮추고, 자녀와 부모의 정서적인 행복감을 낮춘다고 보고되었다(Thorell et al., 2021). 더욱이 양육환경의 변화와 경제적인 요인, 코로나19 관련 요인들이 더해질수록 부모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가족 간 관계의 질이 악화되며, 아이들의 행복감도 낮아진다고 한다(Prime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 유행시기 어머니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두려움을 느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현, 2021).

배은정과 박경자(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가 바뀌었고, 유아의 수면습관과 식습관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유아의 수면의 질이 감소하고, 어머니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걱정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변현정(2021)의 연구는 자녀의 양육시간이 증가한 집단일수록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어머니가 유동적으로 근무할 수 없고 휴가와 외출 사용이 불가능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유행시기 자녀의 돌봄 지원이 없는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고,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머니의 양육환경이 달라지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3~5세 유아의 90.2%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육아정책연구소, 2020a),

중국도 2018년 기준, 유아들의 교육기관 이용률이 83.4%로 나타나(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2019) 한국과 중국 모두 코로나19 시기에 기관의 휴원과 원격수업으로 전환으로 인해 가정 내 양육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2020년 2월 말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 조치가 이루어졌고 감염 위험의 심각 단계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과 아동돌봄쿠폰의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 달이 경과한 후, 0~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원/휴교 기간에 돌봄 공백을 경험한 경우가 36.2%였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나타난 경우가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20b). 코로나19 유행시기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통합 돌봄체계나 마을 돌봄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와(최아라, 2020) 재난 상황에서 긴급돌봄체계를 정비하거나 지역사회에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최윤경, 2020).

중국의 경우,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구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아동 구호 및 보호를 위한 사업계획'을 실시하여 코로나에 대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시기 결손아동 보호를 주요 사업내용에 포함시키고, 업무계획을 추진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향진민정부(동사무소)에서 각 마을의 아동 보호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양 의무와 보호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의 핫라인인 '12338'로 연락하여 보고해

야 한다. 통보받은 후에는 의료인, 교사, 지역사회 근무자, 자원봉사자 및 관련 공익 자선 단체에서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정을 방문한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양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을위원회에서 다른 보호자의 돌봄을 위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동의 후견인이 없으면, 마을위원회에서 임시로 돌봐주고 불가능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임시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책임 맡아 돌보게 된다. 결손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결손 아동의 재택학습을 위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시기 아동돌봄 서비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를 받게 된다(Chen & Yuan, 2020). 이처럼 중국의 경우 돌봄 공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마을 돌봄체계를 이미 구축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유행시기에 한국 어머니와 비교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적고, 양육스트레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은 같은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부모들은 한국의 1~4단계 거리두기 체제와는 다른 코로나19 대응체제를 중국의 사회·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토가 크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나 마을에 보고해야 하고, 중국의 중·고위험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돌아갈 경우 14일 집중 격리가 요구된다. 또한 인민 정부의 규제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치안 관리에 따른 처벌법'이라는 엄중한 처벌 방침을 지니고 있다(Ling, 2020).

한국과 중국이라는 각기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코로나19 대응정책과 돌봄공백 체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느끼는 일반적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시기 코로나19 대응방안과 돌봄체계의 차이로 한국 어머니와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유아 교육기관의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경제활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보고에 기반하여(여성가족부, 2020),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유행시기 어머니의 양육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위험요인이 유아의 발달에 장·단기적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근거에 기반하여(Benner & Mistry, 2020; Yashikawa et al., 2020) 본 연구는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코로나19의 유행이 유아의 발달 및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에 적용해보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아동이 다니는 교육기관의 정책이 바뀌고, 휴원을 하거나 원격수업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enderson et al.(2020)은 Bronfenbrenner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코로나19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유행시기 부모의 양육을 받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외체계, 거시체계의 측면에서 설명하였고, 이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Edler가 제시한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은 인간의 발달을 일대기적 사건과 사회적

사건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한다. 즉, 생애과정이론에 의하면, 역사적인 사건이 인간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개인은 이 변화 속에서 발달의 경로를 형성하기 때문에(Edler, 1998) 코로나19의 유행이 아이와 아이가 속한 가족의 삶을 변화시켜 아이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nner & Mistry, 2020). 생애과정이론의 관점에서 거시적인 사건이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Benner와 Mistry(2020)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침투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Elder, 1998). 예를 들어, 교육기관이 휴원을 하면서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원격수업을 지원해야 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되면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였다. 아이들 또한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되면서 겪는 불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방식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이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Gundersen & Ziliak, 2018).

일부 연구에서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아이들이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면 및 식습관 장애를 보이거나 어두움을 두려워하고 악몽을 꾸거나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Parsons, 2020). 또한 유아기 아이들은 사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재난을 자신이 한 일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Parsons, 2020).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고통 중에서도 유아의 불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불안은 위험이 닥칠 것으로 느껴지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로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을 수반한다. 불안은 어린 시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한

다(Edwards et al., 2010; Rapee et al., 2009).

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의 불안을 살펴본 연구는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학령기의 아동과 청소년,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ang et al., 2020; Zhou et al., 2020).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거나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높은 스트레스, 범불안장애의 증상,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Nkire et al., 2021). 부모가 자가격리를 경험한 경우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고통이 나타나고(Brooks et al., 2020; Hawryluck et al., 2004) 이는 자녀의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결과를(Mensah & Kiernan, 2010) 바탕으로 어머니가 자가격리를 경험하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있는 경우 유아의 불안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양육환경에 나타난 변화(코로나 확진자 유무, 자가격리의 경험, 양육시간 증가 등)가 유아의 불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탈리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7~18세 자녀들의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Babore et al., 2021).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유아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과(Abidin, 199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이 관련이 있다는 결과(최미경 외, 2013)를 토대로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의 일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고, 다른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시기에 한국과 중국 가정에서의 양육환경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불안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들이 처한 양육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유아의 불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체제로 인한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유아 돌봄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고,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환경 요인을 밝힘으로써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코로나19 유행시기의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코로나19 유행시기의 한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는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와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코로나19 유행시기의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3세~5세의 유아기 자녀가 있는 한국 어머니와 중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135명의 어머니와 중국에 거주하는 어머니 20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한국 어머니의 연령은 만 35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가 62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인 경우가 36명(26.7%),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이 경우가 27명(20%)이었다. 한국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61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전문대학 졸업이 39명(28.9%), 고등학교 졸업이 27명(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인 경우가 82명(60.7%)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1명인 어머니는 60명(44.4%)이었고, 2명인 경우는 68명(50.4%), 3명인 경우는 7명(5.2%)이었다. 가족 유형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형태가 125명(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국 어머니가 속한 가정의 총수입에 대한 응답은 2021년 4인용 가족의 중위소득인 약 480만원을 기준으로 응답의 범주를 만들었다(통계청, 2021). 가정의 총수입이 300만원 이상 42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가구(23%)로 가장 많았고, 420만원 이상 540만원 미만의 경우가 30가구(22.2%), 18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8가구(20.7%) 순으로 조사되어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인 가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어머니의 경우, 만 35세 이상 40세 미만인 어머니가 92명(44.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	
연령	만 20세~25세 미만	1 (0.7)	
	만 25세~30세 미만	7 (5.2)	
	만 30세~35세 미만	36 (26.7)	
	만 35세~40세 미만	62 (45.9)	
	만 40세~45세 미만	27 (20.0)	
	만 45세~50세 미만	2 (1.5)	
	고등학교 졸업	27 (20.0)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39 (28.9)	
	4년제 대학 졸업	61 (45.2)	
	대학원 졸업 이상	8 (5.9)	
	기능직	1 (0.7)	
직업	판매·서비스직	4 (3.0)	
	사무직	26 (19.3)	
	자영상공업	3 (2.2)	
	관리직	2 (1.5)	
	전문직	16 (11.9)	
	가정주부	82 (60.7)	
	기타(기타 분류 불가 직업)	1 (0.7)	
	총 자녀 수	1명	60 (44.4)
		2명	68 (50.4)
		3명	7 (5.2)
조부모+부모+자녀		8 (5.9)	
가족 유형	조부모+한부모+자녀	1 (0.7)	
	부모+자녀	125 (92.6)	
	기타	1 (0.7)	
	180만원 미만	5 (3.7)	
가정의 총수입	180만원~300만원 미만	28 (20.7)	
	300만원~420만원 미만	31 (23.0)	
	420만원~540만원 미만	30 (22.2)	
	540만원~660만원 미만	17 (12.6)	
	660만원 이상	20 (14.8)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계속)

변인	구분	N (%)	
연령	만 25세~30세 미만	11 (5.3)	
	만 30세~35세 미만	77 (37.0)	
	만 35세~40세 미만	92 (44.2)	
	만 40세~45세 미만	24 (11.5)	
	만 45세~50세 미만	3 (1.4)	
	만 50세 이상	1 (0.5)	
	중학교 졸업	15 (7.2)	
학력	고등학교 졸업	33 (15.9)	
	2-3년제 대학 졸업	61 (29.3)	
	4년제 대학 졸업	86 (41.3)	
	대학원 졸업 이상	13 (6.3)	
직업	기능직	3 (1.4)	
	판매·서비스직	5 (2.4)	
	사무직	30 (14.4)	
	자영상공업	25 (12.0)	
	관리직	12 (5.8)	
	전문직	23 (11.1)	
	가정주부	87 (41.8)	
	기타(기타 분류 불가 직업)	23 (11.1)	
	자녀 수	1명	134 (64.4)
		2명	72 (34.6)
3명		2 (1.0)	
조부모+부모+자녀		54 (26.0)	
가족 유형	조부모+한부모+자녀	4 (1.9)	
	친인척+부모+자녀	1 (0.5)	
	친인척+한부모+자녀	2 (1.0)	
	부모+자녀	133 (63.9)	
가정의 총수입	한부모+자녀	8 (3.8)	
	기타	6 (2.9)	
	1500-3000위안 미만	9 (4.3)	
	3000-4500위안 미만	29 (13.9)	
	4500-6000위안 미만	38 (18.3)	
가정의 총수입	6000-7500위안 미만	34 (16.3)	
	7500위안 이상	88 (42.3)	

였고, 그 다음으로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어머니가 77명(37%),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인 어머니가 24명(11.5%)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가 86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2-3년제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가 61명(29.3%), 고등학교 졸업이 33명(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가정주부인 어머니가 87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30명(14.4%), 자영상공업직이 25명(12%)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의 수가 1명인 중국 어머니는 134명(64.4%)이었고, 2명인 경우는 72명(34.6%), 3명인 경우는 2명(1%)이었다. 가족 유형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형태가 133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54명(26%)이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어머니가 속한 가정의 총수입의 항목을 중국의 중위소득인 5000위안(약 94만원)을 기준으로 응답을 제작하였다. 가정의 총수입이 7500위안 이상인 경우가 88가구(4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뒤이어 4500위안 이상 6000위안 미만인 경우가 38가구(18.3%), 6000위안 이상 7500위안 미만인 가구가 34명(16.3%), 3000위안 이상 4500위안 미만인 가구가 29가구(13.9%), 1500위안 이상 3000위안 미

만인 경우가 9가구(4.3%)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중위소득과 비교했을 때, 중간소득과 고소득인 가구의 어머니가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 어머니와 중국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라 유아의 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한국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 여부, 자녀 수, 가정 유형과 수입에 따른 유아 불안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국 어머니도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유아의 불안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추후 분석에서 해당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도구

어머니의 양육환경

어머니의 양육환경은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어머니의 양육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문항들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코로나19 유행시기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문항들을 고찰한 후, 코로나19의 측면, 양육시간의

표 2. 코로나19 유행시기의 어머니의 양육환경 문항의 구성

	문항 구분	문항 유형	관련 참고문헌
코로나19	자가격리 경험 여부	객관식 유형	김성현(2021), Nkire et al(2021), Westrupp et al(2020), Yang et al(2020)
	코로나19 확진자 수	단답식 유형	
양육시간	증가한 양육시간	객관식 유형	변현정(2021), Benner & Mistry(2020)
	양육시간이 증가한 이유	객관식 유형	
양육걱정	자녀와 놀이 시간	객관식 유형	배은정, 박경자(2021), Brown et al(2020)
	코로나19 유행시기 자녀 양육에서 힘든 점	객관식 유형	
	코로나19 유행시기 자녀 양육에서 걱정되는 점	서술식 유형	

측면, 자녀의 양육에 대한 걱정의 측면에서 어머니 양육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각 측면에 포함된 문항들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코로나19의 측면으로 구분된 양육환경에 관한 문항에는 자가격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양육시간의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유행시기 전에 비해 증가된 양육시간과 증가한 이유에 대한 문항을 제작하였고, 코로나19 유행시기 동안 어머니가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에 대한 문항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 걱정의 측면은 코로나19 유행시기 동안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점에 대한 보기 중 선택하는 질문과 코로나19 유행시기 동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점을 묻는 서술형 질문을 추가하였다. 서술형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류는 빈번하게 응답한 항목을 기준으로 생성한 뒤, 연구자 2인이 어머니의 응답을 항목에 맞게 분류하였고, 다르게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조율하여 95.6%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Berry와 Jones(1995)가 개발한 부모스트레스척도(Parental Stress Scale; PSS)를 번안 및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함'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가끔 내가 아이(들)를 위해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걱정한다", "만약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아이(들)를/을 갖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등이 있다. "나는 부모로서 만족한다", "나는 내 아이(들)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등을 포함한 8문항은 역 채점하여

합산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의 보상, 부모의 스트레스 요인, 통제 부족과 부모의 만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살펴보기 위해 총점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신뢰도는 $\alpha=.83$, 중국 어머니의 신뢰도는 $\alpha=.86$ 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불안

유아기 자녀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ence와 Rapee(1999)가 개발한 유아불안척도(Preschool Anxiety Scale; PAS)를 2001년에 Spence와 동료들이 재수정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만 3세~5세 유아기 자녀가 여러 명인 어머니의 경우, 유아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자녀의 불안 정도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아이는 걱정으로 인해 긴장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짜증을 낸다'와 '아이의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등을 포함한다. 29번 문항부터 34번 문항까지는 유아가 실제로 나쁜 일이나 충격적인 일(예: 심각한 사고, 가족/친구의 죽음, 폭행, 강도, 재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아가 해당 사건에 대한 불안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느끼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불안, 사회적 공포, 분리불안, 신체적 상해와 강박장애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유아가 느끼는 전반적인 불안을 살펴보기 위해 주관식 문항을 제외하고 1~28번 문항의 총점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한국 유아의 불안 신뢰도 계수는 $\alpha=.91$ 이었고, 중국 유아의 불안 신뢰도 계수는 $\alpha=.93$ 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시기에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환경,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불안 문항이 담긴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중국 어머니의 경우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중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는 아동학 전문가가 한국어로 역번역을 실시하여 번역이 잘 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한국어와 중국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같은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으로 어머니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기간은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 사이이며 한국의 경우 수도권 및 충청, 호남, 경남권의 일부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1.5 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우앤서베이 업체를 통하여 업체에 등록된 한국 어머니 155명이 참여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한국 어머니 135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국의 경우 설문 대상이 된 심양 지역은 설문 당시 코로나 저위험 등급 지역이었으나, 코로나19 유행시기여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WenJuan Xing으로 설문을 제작하였고, 중국 심양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에게 설문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국 심양시 지역의 어머니 32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어머니 208명이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와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어머니와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 간의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중, 자가격리의 경험은 자가격리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0, 격리를 경험한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진자는 가족 구성원 중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구성원 수의 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의 일반적 경향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자가격리 경험 여부와 코로나19 확진자 수

코로나19 유행시기 어머니의 자가격리 경험 여부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일반적 경향을 표 3과

표 3.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자가격리
경험 여부 및 코로나19 확진자 수

항목	한국 어머니 (N = 135)	중국 어머니 (N = 208)
없음	125 (92.6%)	162 (77.9%)
있음	10 (7.4%)	46 (22.1%)

표 4.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

항목	한국 어머니 (N = 135)	중국 어머니 (N = 208)
0명	134 (99.3%)	208 (100%)
1명	1 (0.7%)	0 (0%)

표 5.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증가한 양육시간과 그 이유

항목	한국 어머니 (N = 135)	중국 어머니 (N = 208)
양육시간이 증가하지 않음	26 (19.3%)	47 (22.6%)
1시간 미만 증가	3 (2.2%)	5 (2.4%)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증가	31 (23%)	50 (24%)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증가	27 (20%)	27 (13%)
5시간 이상~7시간 미만 증가	21 (15.6%)	17 (8.2%)
7시간 이상~9시간 미만 증가	7 (5.2%)	19 (9.1%)
9시간 이상 증가	20 (14.8%)	39 (18.8%)
무응답	0 (0%)	4 (1.9%)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어서	8 (5.9%)	22 (10.6%)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10 (7.4%)	7 (3.4%)
자녀들의 교육기관이 휴원하게 되어서	81 (60%)	115 (55.3%)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게 되어서	1 (0.7%)	3 (1.4%)
기타	9 (6.7%)	42 (20.2%)
무응답	26 (19.3%)	19 (9.1%)

표 4에 제시하였다. 한국 어머니의 경우 자가격리를 경험하지 않은 어머니는 125명(92.6%)이었고, 경험한 어머니는 10명(7.4%)으로 나타났다. 중국 어머니의 경우, 자가격리를 경험하지 않은 어머니는 162명(77.9%), 자가격리를 경험한 어머니는 46명(22.1%)이었다.

또한 한국 어머니 중,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는 1명(0.7%) 있었고, 중국 어머니의 가족 구성원 중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는 없었다.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증가한 양육시간과 그 이유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어머니의 증가한 양육시간에 대해 조사하였고, 빈도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첫째, 코로나19 유행시기 어머니의 증가한 양육시간은 한국 어머니의 경우 1시간 이상~3

시간 미만 증가한 경우가 31명(2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시간 이상~5시간 미만 증가한 경우가 27명(20%)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양육시간이 증가한 어머니가 109명(80.7%)으로 양육시간이 증가하지 않은 어머니 26명(19.3%)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시간이 증가한 109명의 한국 어머니가 응답한 양육 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기관이 휴원하게 되어서'가 81명(60%)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가 10명(7.4%)으로 다음으로 많았고,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어서'의 경우는 8명(5.9%),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게 되어서가 1명(0.7%)으로 나타났다.

중국 어머니의 경우는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증가한 양육시간이 1시간 이상~3시간 미만 증가한 경우가 50명(2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양육시간이 증가한 어머니가 157명(75.4%)으로 양육시간이 증가하지 않은 47명(22.6%)의 어머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어머니의 경우도 양육시간이 증가한 이유로 '자녀들의 교육기관이 휴원하게 되어서'가 115명(55.3%)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어서'가 22명

(10.6%)이었고,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가 7명(3.4%)이었으며,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게 되어서'가 3명(1.4%)이었다.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와 자녀의 놀이시간

코로나19 유행시기에 한국과 중국 어머니가 하루 동안 자녀와 놀이하는 평균 시간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한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놀이하는 평균 놀이시간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경우가 36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와 유사한 빈도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놀이시간이 증가한 어머니가 35명(25.9%)이었다.

중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놀이하는 평균 놀이시간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경우가 62명(2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경우가 51명(24.5%), 5시간 이상인 어머니가 38명(18.3%),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36명(17.3%),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인 경우가 11명(5.3%),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0명(4.8%)이었다.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 양육의 힘든 점과 걱정되는 점

코로나19 유행시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표 6. 코로나19 유행시기 어머니와 자녀의 놀이시간

항목	한국 어머니 (N = 135)	중국 어머니 (N = 208)
1시간 미만	16 (11.9%)	10 (4.8%)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35 (25.9%)	51 (24.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6 (26.7%)	62 (29.8%)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21 (15.6%)	36 (17.3%)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12 (8.9%)	11 (5.3%)
5시간 이상	15 (11.1%)	38 (18.3%)

표 7. 코로나19 유행시기 자녀 양육에서 힘든 점

항목	한국 어머니 (N = 135)	중국 어머니 (N = 208)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78 (57.8%)	106 (51%)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21 (15.6%)	30 (14.4%)
부모 개인의 고통	10 (7.4%)	10 (4.8%)
위의 세 가지 모두 해당	26 (19.3%)	14 (19.7%)
무응답	0 (0%)	11 (5.3%)

표 8. 코로나19 유행시기 자녀 양육에서 걱정되는 점

항목 (주관식 응답)	한국 어머니 (N = 135)	중국 어머니 (N = 208)
자녀의 학업과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	14 (10.4%)	34 (16.3%)
어머니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어려움	17 (12.7%)	0 (0%)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29 (21.6%)	14 (6.7%)
자녀 양육의 부담감	18 (13.4%)	9 (4.3%)
자녀의 건강과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걱정	22 (16.4%)	36 (17.3%)
자녀와의 놀이에 대한 걱정	7 (5.2%)	1 (0.5%)
외출이 어려워 야외활동이 어려운 점	13 (9.7%)	3 (1.4%)
분류가 어려운 응답	11 (8.2%)	17 (8.2%)
무응답	3 (2.2%)	94 (45.2%)

힘든 점에 대해 선택형 문항,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자녀 양육에 대해 걱정하는 점을 서술형 문항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표 8에 각각 제시하였다. 한국 어머니의 경우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78명(5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세 가지 항목(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부모 개인의 고통)이 모두 해당한다고 한 어머니가 26명(19.3%) 이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걱정되는 점에 대한 서술형 응답을 주제별로 분류하였을 때, 한국의 경우,

자녀의 건강과 코로나 감염에 대해 걱정하는 어머니의 응답과 자녀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대해 걱정하는 응답이 29명(21.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걱정에 응답한 어머니가 22명(16.4%)이었다.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걱정에 대한 응답의 경우는 '사회성 부족이 걱정됩니다', '아이들의 친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소통, 교우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녀의 건강과 코로나 감염에 대해 걱정하는 어머니 응답의 예로는 '우리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항상 불안하다', '아이의 안전과 건강', '아이들의 건강' 등이 있었다.

중국 어머니의 경우,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106명(5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다고 보고한 어머니가 30명(14.4%)이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걱정되는 점에 대한 서술형 응답을 주제별로 분류하였을 때, 무응답을 제외하고, 자녀의 건강과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걱정의 응답 비율이 36명(17.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건강과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는 어머니 응답의 예로는 ‘아이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두려워요’, ‘아이의 건강문제’, ‘아이와 가족들의 안전’ 등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학업과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이 있다고 보고한 어머니가 34명(16.3%)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업과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에 대한 응답의 예시는 ‘자녀의 학업 문제’, ‘정상적인 등교문제’ ‘교육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검증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중국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보다 자가격리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01, p<.001$).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한국 어머니가 중국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0.36, p<.001$). 이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 어머니가 중국 어머니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불안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유행시기에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

표 9. 코로나19 유행시기의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검증

변인	한국 어머니 (N = 135) M (SD)	중국 어머니 (N = 208) M (SD)	차이점수	t
자가격리 경험 여부 ¹	0.07 (0.26)	0.22 (0.42)	-0.15	-4.01***
코로나 19 확진자 수	.01 (0.09)	0 (0)	0.01	1.00
증가한 양육시간 ²	3.85 (1.94)	3.86 (2.14)	-0.01	-0.03
자녀와의 놀이시간 ³	3.17 (1.49)	3.49 (1.50)	-0.32	-0.32
양육스트레스	2.79 (0.51)	2.43 (0.57)	0.36	0.36***

*** $p<.001$.

¹자가 격리 경험 여부: 0=아니오, 1=예

²증가한 양육시간, ³자녀와 놀이시간은 표 5, 표 6에 제시된 항목을 양적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음.

- 중국 어머니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가 없었음.

표 10.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불안 간의 상관

변인	중국 어머니 (N = 208)					
	1	2	3	4	5	6
1 자가격리 경험 여부 ¹	-	-	-.10	-.07	.03	.08
2 코로나19 확진자 수	.02	-	-	-	-	-
3 증가한 양육시간 ²	.07	.01	-	.19**	-.02	-.03
4 자녀와의 놀이시간 ³	.11	-.01	.19*	-	-.11	-.11
5 양육스트레스	-.07	-.08	.03	-.17	-	.21**
6 유아의 불안	.18*	.22**	-.08	.03	.22*	-

* $p < .05$. ** $p < .01$.

¹자가 격리 경험 여부: 0=아니오, 1=예

²증가한 양육시간, ³자녀와의 놀이 시간은 표 5, 표 6에 제시된 항목을 양적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음.

- 중국 어머니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가 없었음.

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앞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표 10). 한국 어머니는 자녀 양육시간이 많아질수록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r = .19, p < .05$), 또한 한국 어머니의 자가격리 경험 여부($r = .18, p < .05$), 코로나19 확진자 수($r = .22, p < .01$), 양육스트레스($r = .22, p < .01$)는 모두 유아의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통해

표 11.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 어머니와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한국 유아의 불안 (N = 135)			종속변수: 중국 유아의 불안 (N = 208)		
	B	SE	β	B	SE	β
자가격리 경험 여부 ¹	0.37	0.17	0.18*	-0.09	-0.07	-1.01
코로나19 확진자 수	1.55	0.51	0.25**	-	-	-
증가한 양육시간 ²	-0.03	0.02	-0.10	0.00	0.02	0.01
자녀와의 놀이시간 ³	0.04	0.03	0.12	-0.04	0.03	-1.46
양육스트레스	0.26	0.09	0.25**	0.20	0.07	0.21**
R^2		0.15			0.06	
F		4.64***			3.39**	

* $p < .05$. ** $p < .01$.

¹자가 격리 경험 여부: 0=아니오, 1=예

²증가한 양육시간, ³자녀와의 놀이시간은 표 5, 표 6에 제시된 항목을 양적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음.

- 중국 어머니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가 없었음.

어머니가 자가격리를 경험했을수록 자녀의 불안 정도가 높고, 가정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을수록 유아의 불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녀의 불안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와 양육시간이 많아질수록 자녀와 놀이하는 시간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19, p<.01$), 또한 중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도 유아의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밝혀져($r=.21, p<.01$)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녀의 불안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시기의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유아 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없었던 관계로 통제변인은 설정하지 않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한국 어머니들의 응답을 분석한 경우,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 1.007~1.082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었으며 Durbin-Watson 지수도 1.970으로 잔차들 간의 자기상관의 위험성이 배제되었다. 중국 어머니의 경우, VIF 지수는 살펴본 결과 1.010~1.04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은 없었고, Durbin-Watson은 1.871로 잔차들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배경 변인(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정수입)에 따른 유아 불안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유아의 불안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인 관계로 배경 변인들을 투입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본고에 제시된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여 최종모형에 배경

변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유아의 불안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64, p<.001$), 유아 불안의 변량을 15% 설명하였다. 유아의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한국 어머니의 자가격리 경험 여부가 유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이었고($\beta=.18, p<.05$), 가족 구성원 중 확진자의 수도 유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이었다($\beta=.25, p<.001$).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25, p<.01$).

중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39, p<.01$), 유아 불안의 변량을 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다($\beta=.21, p<.01$). 즉, 코로나19 유행시기에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불안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시기에 한국과 중국 어머니들의 양육환경을 조사하였고, 한국과 중국 어머니 간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어머니 모두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증가한 경우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양육시간이 증가한 이유로 자녀들의 교육기관 휴원

을 선택한 비율이 한국과 중국 어머니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시기 자녀 교육기관의 휴원으로 가정에서 자녀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거나 양육을 책임지느라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Claver et al., 2020; Moscardino et al., 2021).

둘째, 한국과 중국 어머니 모두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다른 유형의 스트레스보다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스트레스란 평생동안 지속되는 부모-자녀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경험에 해당한다(Abidin, 1992). 어머니가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양육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무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고, 학대 잠재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Brenner & Mistry, 2020; Brown et al., 2020) 코로나19 시기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서 걱정되는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을 분류한 결과, 한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자녀의 건강과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중국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건강과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걱정, 자녀의 학업과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한국과 중국 어머니는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과 자녀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교육기관에 등원하지 못하고, 실외활동 제한으로 인한 자녀들의 사회·정서발달과 학습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유행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었으나 어머니들이 코로나19 유행 전, 후로 양육에 대한 걱정, 어려움, 스트레스 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인 기술통계 결과만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명확히 설정하여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중국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보다 자가격리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한국 어머니가 중국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가격리의 경우 중국 어머니가 더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어머니가 자가격리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한국과 중국 어머니가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코로나19 대응방안과 돌봄공백 정책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어머니 모두 양육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기관이 휴원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교육기관이 휴원하여 자녀의 돌봄으로 걱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돌봄을 책임져줄 수 있는 지역사회 체계적인 정책과 보조가 중국 어머니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도움이 중국 어머니들의 낮은 스트레스로 이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에는 더욱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거주하는 국가의 코로나 대응정책 간의 관련이 있는지 더욱 심도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재난 시기에 어머니의 돌봄을 도와 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 및 강화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보육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과 같이 긴급돌봄에 대한 이용이 증가할 것을 예상되는 경우 긴급보육제도와 함께 가정내양육지원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최아라(2020)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마을돌봄체계가 구축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 돌봄 도우미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면 전염병 시기에 어머니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 요인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에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한 결과, 한국 어머니의 자가격리 경험 여부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유아의 불안에 유의한 정적 변인이었다. 즉, 어머니가 자가격리 경험이 있고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았을수록 유아의 불안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의 아동, 청소년, 대학생들이 심리적인 문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고하였다는 연구(Liang et al., 2020; Zhou et al., 2020)와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집에 격리된 경우, 높은 스트레스, 범불안장애의 증상, 우울 증상들을 보였다는 결과를(Nkire et al., 2021)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가격리를 경험한 부모는 우울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Brooks et al., 2020; Hawryluck et al., 2004) 이는 자녀의 심리적인 문제와 이어진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Mensah & Kiernan, 2010). 물론 유아가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를 하였는지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유아에게 중요한 대상으로

서 어머니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유아가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정적 변인이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Babore et al., 2021)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과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들(최미경 외, 2013; Abidin, 1992)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이 제시하듯이, 아이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아기의 불안은 유아가 이후 시기를 살아가면서 겪게 될 다른 어려움을 높이는 심리적 고통에 해당한다(Edwards et al., 2010; Rapee et al., 2009).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유아가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들을 점검해야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 불안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바이러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인지적 이해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편의표집방법으로 한국과 중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한국과 중국 전체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대표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온라인으로 설문이 이루어져 어머니들이 응답에 충실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보장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경험하였거나 코로나 감염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전화, 화상을 통한 인터뷰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위험에 놓인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아의 불안은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부모가 보고하는 자녀의 불안 정도는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왔기 때문에(Krain & Kendall, 2000) 다양한 평정자로부터 유아의 불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 유행시기 어머니의 양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양육환경과 관련된 변인들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강하게 연관된 변인에 해당한다(김유진, 2020; Raikes & Thompson, 2005). 그 밖에도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등을 포함시켜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자가격리 여부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격리 여부나 코로나19 확진자수의 평균이 각각 0.07, 0.01로 매우 작은 값이다. 본 연구대상에서 자가격리를 경험하거나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 시점인 2021년 3월, 한국의 경우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5단계였고, 심양지역의 경우도 저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상태였

다. 그러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현재 한국은 2022년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적인 모임 제한, 기타 시설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조사를 다시 시행한다면 본 연구의 조사시점보다 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 가까운 지인 또는 본인의 확진 등과 같은 감염병 관련 경험이 증가했을 수 있다. 즉, 조사시점에 따라 경험의 축적, 경험에 대한 인식 등이 심리적 기제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 내용을 반복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불안 등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의 관련성이 지속되는지도 종단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고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유아들의 불안과의 관련성을 밝혀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돌봄정책이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의 돌봄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가정 내 돌봄, 어머니와 유아의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김성현 (2021). 코로나19 시대 영유아기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연구**, 2121(13), 375-390.
<https://doi.org/10.5723/kjcs.2021.42.4.445>
- 김유진 (2020). 유아의 기질,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자원연구**, 5(1), 159-189.
<http://doi.org/10.52384/JECEC.2020.5.1.159>
- 배은정, & 박경자 (2021). 코로나 19 로 인한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2(4), 445-456.
<https://doi.org/10.5723/kjcs.2021.42.4.445>
- 변현정 (2021). **영유아 교육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양육 관련 변인과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ca.skku.edu:8080/link?id=T15949110>
- 보건복지부 (2021).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Retrived Sep 20th, 2021, from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 여성가족부 (2020). **코로나19 이후 여성고용 변화 분석 및 정책과제 모색**. Retrived Sep 20th, 2021, from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 육아정책연구소 (2020a). **2019 영유아 주요통계**(연구자료 2020-01).
- 육아정책연구소 (2020b).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 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육아정책 Brief 81호).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2019). **2019년도 전국교 육사업발전통계발표**. Retrived Oct 1st, 2021, from http://www.moe.gov.cn/jyb_sjzl/sjzl_fztjgb/202005/t20200520_456751.html
- 최미경,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2013). 부모공동 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 **가정과삶의질학회**, 31(2), 25-39.
<http://dx.doi.org/10.7466/JKHMA.2013.31.2.025>
- 최아라 (2020). 코로나 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인문사회21**, 11(4), 1379-1390.
<http://dx.doi.org/10.22143/HSS21.11.4.97>
- 최윤경 (2020). [이슈브리프] 코로나 19와 아동 돌봄의 쟁점. **전데리뷰**, 57, 63-69
- 통계청 (2021). **기준 중위소득 추이**. Retrived May 1st, 2021,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Babore, A., Trumello, C., Lombardi, L., Candelori, C., Chirumbolo, A., Cattelino, E., Baiocco, R., Bramanti, S. M., Vicecunti, M. L. Pignataro, S., & Morelli, M. (2021). Mothers' and children's mental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ockdown: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1-13.
<https://doi.org/10.1007/s10578-021-01230-6>
- Benner, A. D., & Mistry, R. S. (2020). Child develop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a life course theory len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4(4), 236-243.
<https://doi.org/10.1111/cdep.12387>
- Berry, J. O., & Jones, W. H. (1995). The parental stress scale: Initial psychometric evid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3), 463-472
<https://doi.org/10.1177/0265407595123009>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books.google.co.kr/books?id=OCmbzWka6xUC&lpg=PA3&ots=yzNZQ0XNbe&dq=Bronfenbrenner%2C%20U.%20\(1979\)](https://books.google.co.kr/books?id=OCmbzWka6xUC&lpg=PA3&ots=yzNZQ0XNbe&dq=Bronfenbrenner%2C%20U.%20(1979))
- Brooks, S. K., Webster, R. K., Smith, L. E., Woodland, L., Wessely, S., Greenberg, N., & Rubin, G. J. (202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and how to reduce it: rapid review of the evidence. *The Lancet*, 395(10227), 912-920.
[https://doi.org/10.1016/S0140-6736\(20\)30460-8](https://doi.org/10.1016/S0140-6736(20)30460-8)
- Brown, S. M., Doom, J. R., Lechuga-Peña, S., Watamura, S. E., & Koppels, T. (2020). Stress and parenting during the global COVID-19 pandemic. *Child Abuse & Neglect*, 110, 104699.
<https://doi.org/10.1016/j.chiabu.2020.104699>
- Chen, W., Wang, Q., Li, Y. Q., Yu, H. L., Xia, Y. Y., Zhang, M. L., Qin, Y., Zhang, T., Peng, Z. B., Zhang, R. C., Yang, X. K., Yin, W. W., An, Z. J., Wu, D., Yin, Z. D., Li, S., Chen, L. Q., Feng, L. Z., Li, Z. J., & Feng, Z. J. (2020). Early containment strategies and core measures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novel coronavirus pneumonia in China. *Zhonghua yu fang yi xue za zhi [Chinese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4(3), 239-244.
<https://doi.org/10.3760/cma.j.issn.0253-9624.2020.03.003>
- Cluver, L., Lachman, J. M., Sherr, L., Wessels, I., Krug, E., Rakotomalala, S., Blight, S., Hillis, S., Bachman, G., Green, O., Butchart, A., Tomlinson, M., Ward, C. L., Doubt, J., McDonald, K., &

- McDonald, K. (2020). Parenting in a time of COVID-19. *The Lancet*, 395(10231).
[https://doi.org/10.1016/S0140-6736\(20\)30736-4](https://doi.org/10.1016/S0140-6736(20)30736-4).
- Coronavirus, W. H. O. (2021). Dashboard|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with vaccination data. Retrieved Sep 26th, 2021, from
<https://covid19.who.int/>
- Edwards, S. L., Rapee, R. M., & Kennedy, S. (2010). Prediction of anxiety symptoms in preschool-aged children: examination of maternal and paternal perspectiv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3), 313-321.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9.02160.x>
- Elder Jr, G. H.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8.tb06128.x>
- Halayem, S., Sayari, N., Cherif, W., Cheour, M., & Damak, R. (2020). How Tunisians physicians of public health hospitals deal with COVID-19 pandemic? Perceived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4(9), 496-512.
<https://doi.org/10.1111/pcn.13097>
- Hawryluck, L., Gold, W. L., Robinson, S., Pogorski, S., Galea, S., & Styra, R. (2004). SARS contro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quarantine, Toronto, Canad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0(7), 1206.
<https://doi.org/10.3201/eid1007.030703>
- Henderson, M. D., Schmus, C. J., McDonald, C. C., & Irving, S. Y. (2020).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impact on child mental health: a socio-ecological perspective. *Pediatric Nursing*, 46(6), 267-290.
<http://eds.s.ebscohost.com.ssl.ca.skku.edu:8080/eds/pdfviewer/pdfviewer?vid=1&sid=46e7399d-c317-4b64-87c3-caf27668944a%40redis>
- Krain, A. L., & Kendall, P. C. (2000). The role of parental emotional distress in parent report of child anxie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3), 328-335.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903_4
- Liang, L., Ren, H., Cao, R., Hu, Y., Qin, Z., Li, C., & Mei, S. (2020). The effect of COVID-19 on youth mental health. *Psychiatric Quarterly*, 91(3), 841-852.
<https://doi.org/10.1007/s11126-020-09744-3>
- Ling, Y. P. (2020). Epidemic prevention campaign, strengthening urban management law enforcement. *Urban and Rural Construction*, (5), 25-27.
<http://www.cqvip.com/qk/90613x/202005/7101097628.html>
- Mensah, F. K., & Kiernan, K. E. (2011). Maternal general health and children's

- cognitive development and behaviour in the early years: findings from the Millennium Cohort Stud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7(1), 44-54. <https://doi.org/10.1111/j.1365-2214.2010.01150.x>
- Moscardino, U., Dicataldo, R., Roch, M., Carbone, M., & Mammarella, I. C. (2021). Parental stress during COVID-19: A brief report on the role of distance education and family resources in an Italian sample. *Current Psychology*, 40(11), 5749-5752. <https://doi.org/10.1007/S12144-021-01454-8>
- Nkire, N., Mrklas, K., Hrabok, M., Gusnowski, A., Vuong, W., Surood, S., Abba-Aji, A., Urichuk, L., Cao, B., Greenshaw, A. J., & Agyapong, V. I. (2021). COVID-19 pandemic: Demographic predictors of self-isolation or self-quarantine and impact of isolation and quarantine on perceived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Frontiers in Psychiatry*, 45. <https://doi.org/10.3389/fpsy.2021.553468>
- Parsons, J. (2020). *COVID-19, kids, and anxiety in 2020. Aust J Gen Pract 2020; 49 Suppl 27.* <https://doi.org/10.31128/AJGP-COVID-27>
- Prime, H., Wade, M., & Browne, D. T. (2020).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75(5), 631-643. <https://doi.org/10.1037/amp0000660>
- Raikes, H. A., & Thompson, R. A. (2005).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Official Publication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26(3), 177-190. <https://doi.org/10.1002/imhj.20044>
- Rapee, R. M., Schniering, C. A., & Hudson, J. L. (2009). Anxiety disorder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Origins and trea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5, 311-341.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032408.153628>
- Spence, S. H., & Rapee, R. (1999). Preschool anxiety scale (parent report). *Brisbane, Australia: University of Queensland.*
- Spence, S. H., Rapee, R., McDonald, C., & Ingram, M. (2001). The structure of anxiety symptoms among preschool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11), 1293-1316. [https://doi.org/10.1016/S0005-7967\(00\)00098-X](https://doi.org/10.1016/S0005-7967(00)00098-X)
- Sprang, G., & Silman, M. (201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arents and youth after health-related disasters.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7(1), 105-110.

- <https://doi.org/10.1017/dmp.2013.22>
Tchimtchoua Tamo, A. R. (2020). An analysis of mother stress before and during COVID-19 pandemic: The case of China.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41(11-12), 1349-1362.
<https://doi.org/10.1080/07399332.2020.1841194>
- Thorell, L. B., Skoglund, C., de la Peña, A. G., Baeyens, D., Fuermaier, A. B., Groom, M. J., Mammarella, I. C., Van der Oord, S., van den Hoofdakker, B. J., Luman, M., de Miranda, D. M., Siu, A. F., Steinmayr, R., Idrees, I., Soares, L. S., Sorlin M., Luque, J. L., Moscardinl, U. M., Roch, M., ... & Christiansen, H. (2021). Parental experiences of homeschool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ifferences between seven European countries and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mental health condition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13.
<https://doi.org/10.1007/s00787-020-01706-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11 March 2020. Retrieved Sep 26th, 2021, from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 Yoshikawa, H., Wuermli, A. J., Britto, P. R., Dreyer, B., Leckman, J. F., Lye, S. J., Ponguta, L. A., Richter, L. M., & Stein, A. (2020). Effects of the global coronavirus disease-2019 pandemic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hort-and long-term risks and mitigating program and policy actions. *The Journal of Pediatrics*, 223, 188-193.
<https://doi.org/10.1016/j.jpeds.2020.05.020>
- Zhao, Q., Sun, X., Xie, F., Chen, B., Wan, L., Wang, L., Hu, L., & Dai, Q. (2021). Impact of COVID-19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21(3), 100252.
<https://doi.org/10.1016/j.ijchp.2021.100252>

Effects of Korean and Chinese Mothers' Parenting Environment and Parenting Stress on Their Children's Anxie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i Young Lee¹

Lin Cui²

Jihyun Sung³

Department of Psychology, Temple University/ Visiting Scholar¹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 Convergence Program for Social Innov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Student²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 Convergence Program for Social Innov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³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Korean and Chinese mothers' parenting environment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anxie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35 Korean mothers and 209 Chinese mothers of children aged 3-5 years old. Frequenc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21.0. First, Korean and Chinese mothers reported that their parenting time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due to the closure of children's educational institutions. Second, Korean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hinese mothers. Finally, for Korean mothers, the experience of self-quarantine, confirmed cases in the family, and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 variables on the children's anxiety. Chinese mothers' parenting stress affected the Chinese children's anxiety.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parenting environ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actors that could affect children's anxiety.

Keywords : COVID-19, Parenting Environment, Parenting stress, Children's anxiety